

국고보조금 받은 유통법인 거액 대출 논란

무안지역 7곳 저금리로 수십억씩 받아 도·군 승인도 없이... 부도뎌 회수 어려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무안군 관내 산지 유통 영농법인들이 정부나 전남도의 승인 없이 거액의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법인들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자금 회수도 어려운데다 일부 법인들은 저리의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무안군에 따르면 관내 14개 영농조합법인 가운데 7곳이 법안당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의 경우 지난 2008년 보조금 15억6815만원(국비 7억9400만원, 도 1억7865만원, 군 5억9550만원)을 지

원받아 저온창고 등 시설물을 준공했다. 이후 이 법인은 다음해인 2009년 12억6000만원, 2012년 추가로 3억6000만원 등 모두 16억2000만원의 농산물구매정책자금(연리 2%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이 법인의 대출금은 보조금보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무안군이나 전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2011년부터 정부지원 산지유통시설 담보제공 승인은 시·군에 승인문서가 없으면 해주도록 돼 있지만 그 전에는 그 같은 조항이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국

가 보조금지원 시설물 경우 10년간 매매 담보할 수 없고 기계·장비 등은 5년 동안 매매·임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가나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해당 시·군이 농림식품부와 전남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승인없이 대출을 받은 것은 회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에 대출해 준 무안농협 군지부 관계자는 "산지유통 사업은 농산물지원정책에 따라 2~10년까지 연 1~3%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업체 대출과 관련하여 더 이상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무안군 지역주민들은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특정인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박모(54)씨는 "양과농사와는 관련이 없고 무안에서 이만큼 대면 알만한 특정인들이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시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선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신안압해배영농조합, 2년 연속 최우수단지

신안압해배영농조합법인(대표 최홍균)이 2013년 배 수출단지 운영실적 조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단지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지난 달부터 전국 166개소 원예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있어 압해배영농조합은 지난해 8월 제15호 태풍 불라벤과 제14호 덴빈 등의 기상악화에 도 불구하고 농가 힘을 모아 200t을 수출하는 등 재해에 적절한 대처로 농가 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8년 원예전문생산단지(압해배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압해배영농조합법인은 지금까지 미국 LA등에 매년 800여t의 배를 수출하고 있다.

현재 압해배는 114ha의 재배 면적에서 연간 1870여t을 생산해 농가당 평균 4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군은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작과물 향상을 위한 과수 배 꽃가루와 과수포장재, 수출용 과수 봉지,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배 수출을 위해 재배단지 운영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 특성화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해야”

정종득 목포시장, 전남시장군수협의회서 건의

무기계약직 기능직 전환도

정종득 목포시장이 지난 30일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능직 전환 경력 경쟁 임용'을 건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은 목포~부산 간 소요시간이 현 7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단축되고, 호남·경부선 연결로 한반도 순환형 고속철도망이 구축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도 사기양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능직으로의 경력경쟁 임용과 자치단체별

제 각각의 임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무기계약근로자 직종 신설 및 전국 공통 호봉단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시장은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으로 기리기 위한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오는 6월15일 개관하며 많은 참여와 호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보통고부세 산정 시 지방세 생활권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도 사기양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능직으로의 경력경쟁 임용과 자치단체별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나비 날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지난 26일부터 8일까지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제15회 함평나비대축제 현장에서 28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비를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함평군 제공>

‘리틀싸이’ 보러 장보고 축제 오세요

(황민우)

완도군, 웃음왕 선발대회 등 프로그램 공개

완도군이 오는 5월3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13년 장보고 축제와 대한민국 웃음페스티벌의 4개 부문 38개 프로그램을 지난 30일 공개했다.

“빙그레 웃는 섬 완도로 떠나는 축제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장보고 축제는 대한민국 웃음페스티벌과 함께 개최하며 3일 개막행사에 이어 웃음왕 선발대회 등 대표행사,

장보고테마행사, 웃음테마, 기획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인다.

개막행사에는 리틀싸이로 알려지면서 사랑을 받으며 있는 황민우(사진) 군이 전격 출연해 관광객들과 함께 한바탕 말춤과 코믹댄스로 축제의 막을 열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웃음페스티벌은 유

명 코미디 프로인 ‘장보고의 복소리’를 리메이크해 중장년층의 코미디 향수를 불러 오도록 준비중이고 61팀이 치열한 예심을 거쳐 최종 선발된 20여팀 80명의 웃음꾼들이 펼치는 웃음왕 선발대회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내년에 개최되는 2014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미리 볼 수 있는 미니박람회도 해조류산업관을 운영하고 각종 해조류개발음식 전시·시식 행사도 운영하는 등 관광객

들이 즐기고, 맛보고, 웃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2013년 장보고 축제는 대한민국 웃음 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어느 해보다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다”며 “완도군 홈페이지(www.wando.go.kr)를 접속하면 일정별 테마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와 함께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3 장보고축제기간인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해조류 산업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함평성심병원 매주 1회 외과전문의 특진

유방암·대장항문치료 등

함평성심병원이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외과전문의 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특진으로 주민들은 일반 외과진료 및 갑상선, 유방암검사, 탈장이나 대장항문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매주 목요일 하남성심병원 류진우 진료부장과 최주원 일반외과 전문의를 투입하기로 했다.

함평성심병원 관계자는 “시급한 진료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여의치 않아 치료기간을 놓쳐 병을 키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지역민과 환자들을 상대로 호응이 좋으며 여건에 따라 2회로 진료를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제8회 **군산** 콩당보리축제

축제 일곱마당
놀이마당/공연마당/체험마당/전시마당/장터마당/쉼터마당/산책마당

가족을 담은
청보리밭 추억여행

8th GUNSAN BARLEY FESTIVAL

일시 2013. 5.1~5.5 (5일간)
장소 미성동주민센터 앞 보리밭

행사장 오시는 길

주최 **군산콩당보리축제위원회** 주관 **미성농업발전협의회** 후원 **군산시** **군산시의회** **NH농협**